



5월 23일~27일(월~금) 거리전 금잔디 광장
총아의 역사 알아보기
여성주의 교지 정당한 전시
끝나지 않은 이야기 학내 성폭력을 말한다.

5월 23일~27일(월~금) 김작행사 학내 곳곳
학내 공간 다시보기
피로연스

5월 26일 pm 7시 음's party
여성주의 교민을 갖고 활동 중인 학내 활동가들과
서로 Energy를 주고받을 수 있는
판타스틱 화가에게 Energy Up 만담 파티

제12회 여성현실제



Tel 02-760-1430

거리전
5월 23일

MADE BY HERSTORY

이러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재조망하기





지금, 여기, made by herstory

CONTENTS 제12회 여성현실제

기조글 03

제 12회 여성현실제 <지금, 여기 made by herstory> 프로그램 소개 04

스무살을 넘긴 총여학생회, 어떠한 목소리를 만들어왔을까? 06

여성주의 교지 '정정한'의 역사 12

제 13대 총여학생회장 '호병'과의 인터뷰 15

학내 성폭력 짚어보기

- 1990년대 대학 내 성폭력 반대운동 20

- 성폭력 담론의 형성과 반성폭력 학칙 제정의 과정 22

- 한양 성균관대 반성폭력 학칙의 문제점 25

- 교수 성폭력 무엇이 문제인가 30

- 실재상황 X연경학부 전공수업 <7업윤리>를 고발한다! 32

다른 학교의 여성주의 활동 이야기 (관악여모/고대 여위) 34

'총여학생회'가 불만하다? 36

여성주의 크로스워드 파즐 39

2005년 여학생위원회(준)는 이렇게 살아요~! 40



지금, 여기, made by herstory

학내에서 여성주의에 대한 고민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어느덧 20년의 역사를 훌쩍 넘긴 총여학생회와

학내의 여성주의를 말하는 교지 '정정한' 등을 중심으로 한

여성들의 담론 형성은 이제는 다양한 흐름과 망상으로

학내 곳곳에서 소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제12회 여성현실제 <지금, 여기, made by herstory>는

이렇게 학내에서 끊임없이 내어져오고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재조망하여 아직도 여전히 나아지고 있지 않은 여성들의 현실들에

대해서 외쳐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토대로 현재 여성주의의 고민을 가지고 여러 의미들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아직은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이 멀고 험하기만 한 이 현실에 대항하여

서로 힘찬기를 통해 앞으로의 활동들에 새로운 거점 및 토대가 되기를

바라며 이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였습니다.

더 이상 이 사회의 단순한 구성원만이 되기를 거부하며 나아가

당당한 주체로 거듭나기를 이번 여현제를 통해 외쳐봅시다!

거리전

5월 23일~27일(월~금) 금잔디 광장

총여의 역사 찾아보기

드넓은 금잔디 가득 총여학생회의 소무실나기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여성주의 교지 장정현 전시

장정현 창간호부터 모두 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 학내 성폭력을 말한다.

반성폭력 학칙이 제정되어 오기까지 학내 성폭력 담론 항상 살펴보기
교수 성폭력 바라보기 등 여전히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
학내 성폭력에 대해 생각해보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깜짝행사

5월 23일~27일(월~금) 학내 곳곳

학내 공간 다시보기

여성주의 시각으로 본 학내 공간은 어떨까요?

내만의 불편함에 속직해지는 시간!

피모언스

알았는 거오니사가 줄지어 학내를 활보합니다.

만나면 꼭 자료집을 받아보세요~

음's
par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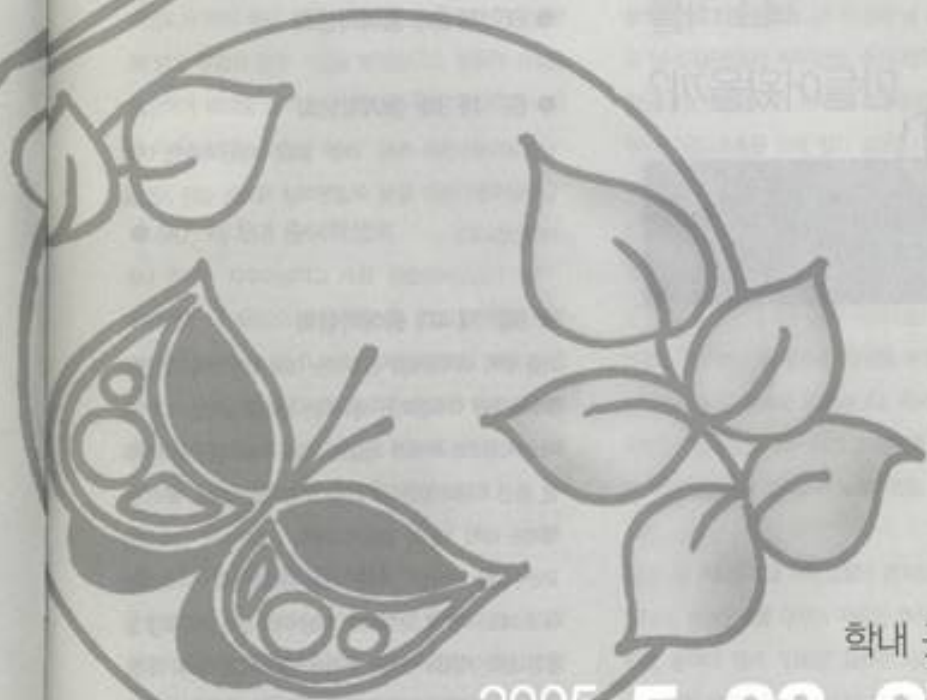
5월 26일 pm 7시

여성주의 고민을 갖고 활동 중인 학내 활동가들과 서로 Fenergy를 주고받을 수 있는
판타스틱 화가에게 Fenergy Up 만망 파티!

활동가들의 생생한 고민과 에너지가 담긴 영상물 상영

학교 안에서 여성주의 활동이 더욱 풍성해질 맛난 학가르

유쾌도반한 속물이 수다 등 다채롭고 일한 프로그램이 남겨둘래요, 아주



학내 곳곳

2005. 5. 23-27

스무살을 넘긴 총여학생회 어떠한 목소리를 만들어왔을까?



● 83' 여학생제대 (제대장 이종미)

학도 호국단내의 집행부인 여학생부가 학내에서의 여학생의 지위와 역할을 확고히 하기 위해 83년부터 '여학생제대'로 발족한 것이라고 하네요.

● 85' 제 1대 총여학생회

'여학생회의 특수성과 사회, 학내의 흐름이라는 일반성을 담보하여 궁극적으로는 여성의 참언간화, 사회 민주화를 향한 진전'을 본질적 목표로 하는 첫 총여학생회가 출범하였습니다.

● 86' 제 2대 총여학생회

● 87' 제 3대 총여학생회

신입여학생수련회 개최, '여명' 발간, 여성문화축전, 여성 민주화추진위원회 창설, 여성한미당 개최와 같은 사업을 해나갔습니다.

● 88' 제 4대 총여학생회

기존 단위 여학생회를 건설하는 데에 집중하여 그 결과 5개 단대에 여학생회가 세워지는 성과를 낳았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AIDS 예방투쟁, 성고문 투쟁, 총선 투쟁과 같은 움직임을 이끌기도 했고요, 특히 그 때에는 마치 지금의 고등학교처럼 대학에서도 남학생은 교련수업을, 여학생은 무용수업을 교양필수로 이수해야 했다고 해요. 여기에 대하여 '무용수업 선택전환 투쟁'을 발의 결과 지금의 우리가 무용수업을 무조건 모두 다 들어야 하는 상황은 면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당시 급속

하게 번지던 성 상품화에 대한 문제제기 운동도 전개하였습니다.

● 89' 제 5대 총여학생회

89년에는 총여학생회의 지속적인 요구로 드디어 학내에 여성학 강의가 처음 개설되었으며, 놀라운 사실은 이때의 요구로 문대 여학생 화장실이 설치되었다는 것이죠. 여학생들의 학교생활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또 5대 총여회는 여성한미당 개최, 여성문제연구소 설립 추진, 여성문제에 대한 강좌, 자주여성학교 개최를 통한 연속강의와 토론 마련, 여학생전용 게시판 설치, 도서관 내 여성도서 비치 등대 요구, 취업차별철폐를 위한 기업 항의 방문 투쟁과 같은 사업을 벌였습니다. 진정한 사실을 보강하여 비디오 설치, 시청각자료 구입, 일상잡지 비치 등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 90' 제 6대 총여학생회

6대 총여회는 자주여성학교 개최, 생활문화운동의 일환인 락이판에, 낙태비디오 상영과 올바른 연애관 정립을 위한 여성한실제 락이사업 나눔이, 여학생한미당 개최, 취업 대학위 구성, 여성학강좌증설 요구, 문과대 여휴 도서관 출 사업 확대 실시, 여성문제연구소 심포지엄 개최, 각 단대 별 여휴 설치 요구와 같은 활동을 벌였습니다.

● 91' 제 7대 총여학생회

7대 총여회는 여성학강좌에 대한 올바른 방향 모색, 남녀학생에게 동등한 취업추천서배부 실현, 취업정보 활성화 및 취업에 필요한 실무기능 습득 강좌 실시와 같은 움직임을

을 만들어나갔습니다. 문과대, 사과대 여휴와 정정현의 나온 환경조성, 정정현의 비디오 사용 개장, 문과대 여휴 도서관출 사업 등을 통해 복지사안에 대한 여학우들의 요구안을 대중적으로 채택하고자 노력하기도 했죠. 또 락이 사업을 강화하고 여학생 한미당, 자주여성학교, 여성한실제와 같은 행사를 치러냈습니다.

● 92' 제 8대 총여학생회

총여학생회 대행위에서 38 여성의 날 기념, 소집회를 갖고 남녀고용평등법, 학아법, 정신대문제에 대한 강연을 했습니다. 8대 총여회는 단위별 취업준비모임을 주선하고, 학우들과의 소통을 위해 정기 설문조사 및 정기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여학생모임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학강좌에 대한 방향 모색 역시 계속해서 이루어져왔고요, 여학생 휴게실 개선, 생리대 자판기 설치와 같은 복지사업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락이활동 사업과 더불어 공부방 자원 활동가 모임을 꾸렸으며, 농활시 부내반과 아동반 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큰 이슈가 되었던 '김보은 김진관 사건' 토론회를 갖고 근친성폭력에 대한 문제성을 알리고자 노력하였죠.

92년 제 7대 문과대 여학생회의 흔적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성문제를 다루는 자료집 형식의 '태동'을 발간하고, 총여와 함께 '김보은 김진관 사건'을 올바르게 알리는 사업을 펼쳤고요, 총선시 반 여성정책이나 성폭력문제의 근원과 해결대안 제시 등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 93' 제 9대 총여학생회

스무살을 넘긴 총여학생회 어떠한 목소리를 만들어왔을까?

9대 총어는 〈함께 살아가며 고민하고 사랑하는 이혼살 소금 친구를 모토로 활발한 활동을 벌였어요. 우선 총어 학생회 대행위에서 여학생 회장실을 통한 '친구에게 편지' 사업을 실시했고, 사회 이슈에 관해서는 여성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윤금씨 사건'에 대한 서명운동을 벌였고요, 정신대 할머니들 생계를 돕기 위한 양말판매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여성학강의에 대한 질적·양적 채고 요구도 역시 계속 되었고, 취업정보를 확보하여 알려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는 총여학생회 기관지 '심산의 딸', 부정기 간행물 '취업정보지'를 통해 전달되었고, 또한 소모임의 집단적인 공동체 놀이문화 고민이 있기도 했습니다. 여휴를 통한 비디오 상영 토론회를 개최하고 생활체육 운동기구 설치 및 대여 등의 복지사업을 내놓을 수 없겠네요. 8대 문어와 함께 성교육학교를 열기도 했습니다.

93년 8대 문어는 〈어우러지는 기쁨을 모토로 생활신문 '태동' 발간, 새내기 여학우 환영회, 졸업생과의 만남 주최 영화 상영, 화장실에도만 설치 방중 여성학 학습, 여휴 도서 정비 및 도서 대출의 날 실시, 여휴를 통한 정기 간담회 및 여학우 모임 주제 회의 인정화 후원회나 비자 회 등을 통한 학자지원 사업을 벌였고요, 역시 9대 총어와 함께 성교육학교를 열기도 했습니다.

● 94' 제 10대 총여학생회 〈열린 사랑, 힘찬 단결〉

10대 총어는 〈열린 사랑, 힘찬 단결을 모토로 활동하였는데요, 이때 하나로 알기, 우리로 물가라는 이름의 제1회 여성현실제가 처음 개최되었습니다. 9대 문어와 함께 한 첫 번째 여헌제는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피아노', '진실의 창',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와 같은 영화들을 상영했고요, 대동한마당, 탁아 한마당, 아이들 사진전, '여성노동의 현주소' 강연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 여성문화제에서는 성교육학교, 호신술강연회를 열었고, 섹터 때는 광고매체에 나타난 성의 상품화와 여성의 가사노동, 슈퍼우먼 컨물레스 등을 다룬 슬라이드를 상영하였고요, 탁아소 자원 활동인 '나눔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습니다. 이 외에도 정장현/문과대/사회대의 여휴를 재장비 하여 자판기와 소파를 설치하고, 사물함을 증설하는 등 복지사업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신경류 교수 사건/일명 우조교 사건에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펼쳤고요, 정신대 할머니 사업 때 맞는 아내들을 위한 쉼터 방문, 성폭력 특별법 제정 요구 등의 호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94년 9대 문어는 〈주인되기〉를 모토로 총어와 함께 제1회 여성현실제를 개최하였고, 강연회, 영화상영, 아한 사진 갈아붙이기, 일일 엄마 아빠 되기, '태동' 발간, 여휴 도서관, 방중 정기세미나와 같은 사업들을 벌였습니다.

● 95' 제 11대 총여학생회

11대 총어는 〈생생 어는 창 느낌표〉를 모토로 활동했습니다. 정기 소식지인 '새벽편지'를 발간하였고, PC통신 HTEL 게시판과 상담전화로 통한 여학우들의 소문 친구를 마련하였습니다. 매체비평모임이 생겨나기도 했고요, 학아 모임 '나눔이'는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벌였고, 당시에 사회과학대에서는 여학생회를 세우기 위한 '여학생회 건준위'가 있었는데요, 정기 간담회, 여성학학습, 어

스무살을 넘긴 총여학생회 어떠한 목소리를 만들어냈을까?

학생 휴게실 관리 등의 움직임을 만들어냈지만 방해세력으로 인해 여학생회를 세우지는 못했다고 해요.

● 96' 제 12대 총여학생회

12대 총어는 기존 섹터의 남성 중심적인 분위기에 저항하고, 여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갖고 처음으로 여세터를 기획했다고 해요. 또 여성영화제 주관을 설정해서 영화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민화 비평 심포지움을 개최해서 여성주의 시각으로 민화를 다시 보는 행사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상당히 유명했던 '도서관 강간미수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성폭력 대책위를 구성하고 사건 해결을 위해 끊임한 노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 97' 제 13대 총여학생회

96년 도서관 사건이나 일명 ROTC사건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반성폭력 학칙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성폭력 근절주관을 설정하고, 성폭력에 대한 토론회 등의 사업을 벌인 결과 학교 측에서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노력이 보이기 하였으나 이는 상시적 기구가 아니었고, 기해자 처벌 기준도 불명확했었고, 또한 학내의 흐름 형성에만 그치지 않고 다른 대학들과 함께 '여성권 확보와 성폭력 학칙 제정을 위한 연대회의'를 결성하여 활발한 활동을 벌입니다. 반성폭력운동주간 선포, 정신대 연대주간 선포를 통해 강연이나 거리진행사업을 하였고요, 제 3회 여헌제에서는 레즈비언 문제와 같은 성정체성 문제, 미혼모 문제 등을 영화, 연극 등 다양한 문화로 표현했었고, 기지촌 활

동과 농활에 있어서도 '여성문제'로 접근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고요, 가을 문화제에서는 미스코리아 반대 토론을 형성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또한 당시의 영페미니스트들로 구성된 '돌꽃모임'이 주관하는 페미니즘 캠프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 98' 제 14대 총여학생회

14대 총어는 〈여성, 이제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꾼다〉, 진실의 중심, 허니틴 행을 모토로 공동체 성문화에 대한 문제제기와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운동'을 진행하였고, 학생회 중심의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제정위원회'를 결성하기도 했습니다. 97년에 결성된 '연대회의'의 활발한 활동 또한 빠질 수 없겠고, 특히 '여성연대'의 '평'을 공동주최하는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wom festival을 통해서 여성주의적 문화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고요, 화장실 소지보 활동인 비틀기 헌단, 비틀기 대학 같은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총여 신문이 창간되기도 했고, 또한 학내의 여성 모임간의 소통을 위한 연석회의를 진행하였고, 정장현의 여성문제 읽을거리 24호에 '학내 여성 운동의 진단과 방향' 좌담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습니다. 정신대주간 선포, 여성노동권확보를 위한 대학연대에 지속적인 참여, 페미니즘 캠프 참여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 99' 제 15대 총여학생회

15대 총어는 〈소위에서 공존으로 여성이 만드는 다름의 세상 HERSTORY〉를 모토로 섹터 반성폭력대규를 제정하였고, 반성폭력 학칙 제정 운동을 계속해서 벌여나갔어

요 여성학 강의 실시 평가를 주장하고 성교육 강연회를 개최하기도 했죠. 총어 신문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한편 학내 여성모임들을 지원하고 또 외부에서는 연대회의의 의 활발한 연대활동도 벌여나갔습니다. 제 2회 비틀기 대회를 통해 우리시대 남성일기 여성 실업, 여성애를 강요하는 사회 속에서의 동성애를 주제로 이야기하였고, 반박 세미나 개최, wom festival 개최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어요. 취업강연회 개최, 여성학자로 보완, 여성학 도서관 강화, 여성 문제 워크숍 등도 주요 사업이었습니다.

● 00' 제 16대 총여학생회

16대 총여는 <여성 그 이름으로 차이 속에 하나 되기 공감행>을 모토로 주로 여성 노동에 관한 시민들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대졸여성실업 극복을 위한 여대생 취업준비 실태와 구직과정에서의 성차별극복방안' 행사에 참가하였고, 제 7회 여성헌신제 <여자는 사랑만 먹고 산다고? 그러다 굶어죽어라>는 이름의 행사를 문어와 밭대 여성학회 씨줄과 날줄과 공동으로 개최하여 여성노동에 관한 이야기들을 풀어냈습니다. 또한 제 4회 wom festival <여성의 입술로/ 여성의 몸짓으로/ 여성의 느낌으로>에서는 여학우 장기자랑, '숨길' 상연, 고무줄뛰기, 거리전과 같은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죠. '무(無)재치(無恥) 무시 알고 싶은 성' 행사를 통해 피임 워크숍, 성문화강연회, 월경 주기 팔찌 만들기, 성폭력 스티커 배부 같은 일들을 벌였습니다.

01' 제 17대 총여학생회

17대 총여는 <연견을 켜 일상속의 침투 WOM들>을 모

로 활동하였습니다. 여학우 새로 배움터에서는 성문화강연회, 반성폭력학익실명회, 역할극, 노래와 드라마 바꾸기 장기자랑, 여성주의체육대회와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죠. 3월에 있었던 여성의 몸 바로알기 <날씬하면 고맙나, 이눔아?>행사에서는 성문화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제 8회 여성헌신제 <추락하는 것엔 자궁이 있다>를 밭대 여성학회 '씨줄과 날줄'과 공동기획 하여 '평화만 있다' 상연, 개악제, 강연해진여노조, 이주환선배-4대총여였, 폐막제, 전여노조 연대 주점, 여성노동 헌신 제향장, 거리전, 조형물 설치, 모성보호, 비정규직 취업여성고 육아문제, 직장내 성폭력과 같은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였습니다. 제 5회 wom festival <대담한 연대, 과감한 돌파 - 성폭력 박물관 폭파작전>에서는 성폭력 강연회 '내 남자친구 이야기', 여학우 팔씨름·고무줄대회, 반성폭력 공청회, 문화축제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반성폭력 학익 재정 운동을 계속해서 벌여나갔고, 여학우 정비, 여성학 강의의 질적 재고를 위해 계속 노력했어요. 호주제 폐지와 일본군성노예문제에 관한 목소리도 높일 수 없었네요.

● 02' 제 18대 총여학생회

18대 총여는 <다르지 않은 이야기, 즐거운 연가 Her/나/타>를 모토로 활동했습니다. 여대터 <여자라서 즐겁다> 유쾌/상쾌/통쾌에서는 여성노동 10년사 영상물 상연, 성교육강연회, 춘극/역할극, 여성주의체육대회와 같은 프로그램을 실시했고요, 3월 새학기 성교육학교에서는 성문화강연회, 월경 주기 팔찌 만들기, 피임법교육과 같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제 9회 여성헌신제 <커밍아웃, 나는 성전>

인(人)이다에서는 존재하였음에도 이야기 되지 못했던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관하여 진솔한 이야기들을 풀어내었죠. 방중에는 동두천 기지촌활동을 했습니다. 제 6회 wom festival <여류랑 놀자>는 학내의 알약한 여학우 휴게실에 관해 타 학교의 사례 비교 등을 통해 여건 개선 및 여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는 성과를 낳았습니다. 여성의 몸에 관한 <당신의 바디는 안녕하십니까?>를 통해 브래지어를 하는 <당연함>에 대한 문제제기, 화장에 관한 짧은 분노, 나 얼굴에 칼을 대려 동등의 이야기를 펼쳤죠. 대동제 때에는 총학이 주최한 100대100 미팅이나 메이크업 강연회에 반대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도 했고요. 전여노조의 연대활동도 빠질 수가 없었네요. 그렇지만 이 전부터 계속 가열차게 이어져온 총여의 반성폭력 학익제정의 노력이 총여와의 상의 없이 학교 측의 일방적인 안으로 날치기 통과되는 씁쓸함을 맛보기도 해야 했습니다.

● 03' 제 19대 총여학생회

19대 총여는 <유쾌한 너와 나의 흥전 페너지, Fenery>를 모토로 활동했어요. 여학우들의 소통을 위한 '덜거리 소식'을 발행하였고, 여대터를 멋지게 치렀지요. 제 10회 여성헌신제 <팔진, 공쥐와 손을 잡다>에서는 '여자친구'에 관한 솔직담백한 이야기들이 많이 울려나왔습니다. 제 7회 wom festival에서는 교수성폭력을 주제로 학내에 문제제기를 시도하였죠.

● 04' 제 20대 총여학생회

20대 총여는 <매사 꼬기의 아주 특별한 용기 인녕을> 모토로 활동했습니다. 새터 반성폭력 내규 개정을 필두로 스무살을 넘긴 총여학생회 어떠한 목소리를 만들어왔을까?

여학우 지원 프로젝트, 여자친구들끼리의 여행 차권, 여성주의 세미나와 같은 힘주기 사업을 많이 벌였고요. 방중엔 여학우들끼리 2박 3일간 아름마실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제 11회 여성헌신제 <성폭력으로부터 안녕하기를> 통해 총여학생회와 함께 해 온 반성폭력학익의 7년, 현재 반성폭력 학익 다시 보기를 시도했고요. 연장선상에서 화장실 성폭력 문제제기가 이루어져 여학우들의 큰 공간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대동제 때에는 성대개 폐해여성 지원 단체인 '새움터' 연대 장터를 마련하였죠. 또 대학내 여성주의 활동가들을 위한 민우회 워크숍에 참여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 8회 wom festival <여(女)7(氣)로 날아오르다>를 통해서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와 움직임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소 숨이 차시나요? 정말 알차게 스무살을 넘긴 총여학생회의 역동적인 움직임들이 고스란히 느껴지지 않나요? 아직 갈 길은 멀고 험하기만 합니다만,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숨을 고르고 호흡을 기다리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필요한 힘을 얻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겠지요. ^^ 사실 상당한 자료가 유실되고 많은 이들의 기억 또한 희미해져서 더 정확하고 풍부한 내용을 담아내지는 못했지만, 학내 곳곳에 오롯이 새겨진 총여의 흔적들은 오늘을 고민하고 내일을 바꿔내는 우리들의 Fenery에 클러스알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흐름에 함께 하실 거죠? "0"

여성주의 교지 '정정현'의 역사

1971년 정정현 창간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창간 초기의 정정현은 '여성주의' 교지라기 보다는 여학우들이 만드는 문학 교지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70년대 후반부터 80년을 통해 '페미니' 이 아닌 '페미니즘'적 시각이 뿌라내리기 시작합니다.

80년대 초·중반에 이르면 여성해방론과 노동운동, 성매매에 대한 연구, 그리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현상에 대한 폭넓은 비평을 보여줍니다. 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대학 내 여성학, 여대생의 자각과 취업 문제, 연애의 정치학 등 대학 내 여성들의 현실에 눈을 돌립니다.

91년 정정현 19호는 90년대 여성운동, 노동운동, 학생운동, 농민운동 등 각 변혁 운동의 흐름에 대한 진단을 기회합니다. 90년대 초반은 계속해서 여성의 정치세력화, 90년대 페미니즘 진단, 그리고 기지촌 활동을 통해 다시 한번 성매매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96년, 정정현 25호는 '연대의 시대를 연다'는 특집을 통해 창녀, 레즈비언 운동과 남성학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정책, 취업, 일본군 성노예 범죄, 성폭력 공화국의 현실 등을 다루었습니다. 97년도에는 통일을 바라보는 여성주의의 시각과 가정폭력, 부모성함케쓰기를, IMF가 터진 98년에는 남성중심적 실업정책에 가려진 여성실업과 개발과 페미니즘을 이야기합니다. 99년 기지촌 활동을 통해 성매매 문제를 다시 한번 연구했으며 근대성과 페미니즘, 제3세계 관점에서 본 페미니즘과 민족주의, 그리고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다루었습니다.

새 세기를 맞는 2000년 정정현 29호는 기존 '여성문제 전문교지'에서 '여성주의 교지'로 정체화하였습니다. 이는 페미니즘을 '여성문제'라는 하나의 하위소재, 부분로 상정하는 뉴알스에서 벗어나 '여성주의'라는 세상을 보는 하나의 전복적인 관점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첫 번째 여성주의 교지이자 29살의 정정현에서는 색슈얼리티를 중심으로 이에 관한 이론과 야오이'라는 문화현상에 대해 연구하였고 여성성에 관한 새로운 정의를 시도하는 글을 기회하였습니다. 또한 총여학생회를 중심으로

성균관에서 반성폭력학칙이 어떻게 제정되어 가는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2001년 정정현 30호에서는 여성노동, 아시아 여성운동, 기존 여성 등 사회 다양한 위치의 여성들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공동연구에서는 90년대 중 후반 대학가 여성운동을 돌아보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2002년 정정현 31호는 한국의 성담론과 페미니즘에 대한 일반적 오해 등 여성주의의 답을 점검하였습니다. 2003년 정정현 32호는 사진, 만화 등 시각적 요소를 풍부히 하였고 '여성'에 중심주의'라는 주제가 하나를 가지고 무크지 형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강의실에 분명 존재하고 있는 동성애자들이 느끼는 감정, 교내의 100:100 미팅 비판 등을 만화로 다루었습니다.

- 1) 남성동성애를 다룬 소설, 만화 등을 가리킴. 여성작가에 의해 쓰여지고 여성들에게 읽힌다.

여성주의 교지 '정정현'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조금 긴 이름이지요? '정정현'은 '성균'과 함께 성균관의 교지이니 여성주의를 연조로 삼는다는 정체성을 갖습니다. 여성주의는 우리가 흔히 아는 페미니즘과 동의어이나, 돈 많고 알 많고 거센 여자들의 욕망이라는 페미니즘에 대한 편견과 달리 여성과 사회적 약자였던 빈민계층, 성소수자 등의 사선으로 사회를 비판하고 바꾸려는 생각 또는 움직임입니다. 타 대학 여성주의 교지로는 고려대 '여순', 중앙대 '페지'가 있습니다.

'정정현'은 옛 여성들의 사랑방 역할을 했던 공간. '정정현'이라는 이름을 달고 1971년 여학우 문예지로 시작했으나 80년대 초중반 여성해방론과 노동운동, 다양한 사회문화적 현상에 대한 폭넓은 비평을 담으며 그 성격을 달리했습니다. 이후 여성의 정치세력화, 성매매, '위안부'일본군 성노예 범죄 기지촌 활동, 가정폭력, 성폭력 여성노동, '아줌마'에 대한 편견 등 여성주의의 제 분야들을 꾸준히 다루고 논하였습니다. 당시의 기획들을 몇 가지 소개해봅니다. 31호에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흥미로워서 학우들의 지적 욕망에 부응했던 '연대의 비밀', 페미니즘이 조금 정력지근했던 분들을 위한 '페미니즘에 대한 일반적 오해', 30호에는 엄마가 딸에게 읽어주는 여성 위인전 '미달에게 주는 편지-역사 속의 여성', '아줌마'가 쓴 '아줌마 이야기'기초여성, 28호 재목만 들어도 흥미진진한 '사이비스페이스의 성별정치학' 등이 있었지요.

논의의 깊이로 호평 받기도 하나 학우들에게 어떻게 다가온다는 여론을 수렴하여 학술지적 외관을 탈피, 잡지의 형식을 띤 32호를 2003년도에 발간했습니다. 내부 사정으로 인해 2004년도의 한 호를 쉬었음을 학우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변화 중이기에 아직 익숙했는지 모르지만 '정정현'은 다수의 학우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모색하려 합니다. 여성주의와 일상의 접점에서 소재와 주제를 찾고 참신한 말하기 방식을 궁리해 '정정현'은 학우들의 권와 입 그리고 행동하는 손발에 착적 달라붙고자 합니다. 그런 편집의 지향을 담은 33호 9월 발간 예정입니다.

1년 내내 학번을 불문하고 수습편집위원을 받습니다.
www.sosim.jinbo.net • www.jhancub.cyworld.com • skkgh@hanmail.net

‘여학생 휴게실’은 여학생들이 쉴 곳이 부족한 학내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다. 운동장이나 당구장 등처럼 남성중심의 공간이 지배적인 학내에서 그야말로 ‘여류’는 우리에게 유일한 쉼터가 되어주고 있지. 하지만 이런 ‘여류’ 역시 그리 실정 좋은 편이 아니다. 그나마 정정현은 학교의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지만 지소담법대에 있는 여류로 3개의 테이블만이 존재한다고 여류경제관에 있는 여류로 옮겨 들어 시설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순수 학생들의 관리로 운영되기 때문에 여전히 그 한계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많은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곳이지. 너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여류가 학생회관의 정정현 이자? 옮겨 들어 시설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만족하니?

나는 여류가 단순한 우리들의 휴식공간으로만 여겨진다는 게 안타까워. 여성들끼리 같이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적은 만큼 이 공간 안에서 나는 우리의 생각이 공유되고 여러 활동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 여성들의 답을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그리고 너희들 ‘정정현’ 이용시간 오전 10시 ~ 오후 5시이 너무 짧다고 생각되지 않나? 솔직히 우리 중에 수업이 오후 8시 30분에 끝나는 사람도 많고 5시 이후에도 여류 공간이 필요한 사람은 상당히 많잖아. 이용시간이 주안인 우리 중심이 아닌 학교 측 입장에 편의에 맞춰서 배치되어져 있다는 점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점이라고 봐. 여류는 분명 우리를 위한 것이야. 그러나 현재 학내에 존재하고 있는 여류는 갈차에 불과 화가나 학교 측 입장에서 관리되어지고 있어서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사고 있지. 이러한 현실을 너무나 괴롭다구우며

B201

여학생휴게실

Women Students Common Room



제 13대 총여학생회장 호빵과의 인터뷰

저는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니 네트워크에서 출판 편집 팀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권김현영이라고 하고, 별칭은 호빵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나 총여 활동 시작하셨을 당시 했던 일이나 그런 거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나눔이 활동(빈민떡야사업)이었고, 10대 여현재 때 ‘여성노동의 현주소’ 강연회 같은 게 있었고, 금잔디 마당에 일일 엄마아빠라고 이런 거 신청 받아가지고 아빠체험 이런 거 하게하고, 외부 연대 사업으로 한여노협 이런 대량 같이 연계해서 자원활동가 보내기도 하고, 여대생 화장 교육, 신입사원 대상 메이크업 특강 이런 거 없애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이나 고용평등법 강의로 만들고, 학교 측에 협상해서 바꾸자 했었죠.

하나 학교와의 관계는 어땠어요?

학교랑 여새터를 처음으로 준비했었는데, 12대 때 성폭력 사건이 처음으로 공론화 되고 그랬어요. 도서관 성폭력 사건이라고 약간 유명한 사건인데,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데 학교 측이 뭐 준비하느냐 가지고 싸우고 있었죠. 그때 성폭력 징계위원의 발족을 하게 됐어요. 굉장히 큰 사건이라 매일 대자보를 썼어요. 학교 측에서는 성폭력 대자보 붙이면 면학분위기 조성에 반대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레즈비언과의 간담회부터 시작해서 되게 급진적인 활동을 많이 했어요. 학교 측에서는 너희 뭐하는 거냐 라고 하고, 특별한 탄압 이런 건 없었고, 대신에 유림들이 좀 시골시골했죠. ‘동성동본 결혼 폐지 축하’ 이런 대자보 붙이면 뜯어지고, 찢어지고.

하나 단위 학생회들끼리의 소통이나 교류는 잘 됐었어요?

법대 여성학회, 사회대 여성학회, 아대 여성 소모임이 있었고, 밤대 여성학회, 그리고 과별 여성학회가 있었고, 문과대 여학생회, 정정현, 이런 식으로 단위 조직들이 있었잖아요. 연석회의 같은 걸 했었죠. 그런데 아무래도 단위가 다르잖아요. 학생회

라는 정체성이 있고 어떤 쪽은 소모임이고, 어떤 쪽은 교지고,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상황이라서 그 모임 자체가 잘 굴러가기는 좀 어려웠던 거 같아요. 총여 사업에 동원하는 개념이 좀 많았기 때문에 불만도 좀 있었고, 사람들은 되게 많았죠. 반갑기도 하고, 자리에 모이면 각 자기 단체에 있었던 썸은 얘기들 이르고~(일동 웃음)

하나 13대 총여방 하셨을 때 하셨던 사업 얘기 해주세요.

여학생 새내기 새로 배움터, OT 단대별로 돌아다니면서 새내기 교양 강좌를 해요. 성폭력 사건들로 접수들 받기 시작하면, 반성폭력 운동 하게 되죠. 다른 학교 연석 회의가 있었어요. 반성폭력 학칙 제정을 위한 '대학 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부총여장이 나가고, 저는 수도권 전국 여성연대 환관이라고 준비하는 모임에 나가고, 그거 말고 들꽃 모임이라고 나가고, 4월 첫 주는 반성폭력 운동주간 선포합니다 라고 해서 반성폭력 자보전 하고 강연회. 4.19 혁명 주간 때 김귀정 열사 왜 누이라고 부르는 문제 제기 하는 자보랑, 정신대 문제 홍보 주간으로 잡아서 외부에 있는 극단이랑 조인트해서 극을 법대 소극장에 올렸어요. 3회 여헌제때도 영화제 같은 거 하고 레즈비언 대중 강연회랑 연극 같은 거 하고, 만화비평 심포지엄하고, 연대 행사로 뛰어 관련된 행사 있을 때는 사람들 다 데리고 가고, 호프도 가고 바에도 가고, 5월에 했던 게 농활이랑 기합(기지촌활동) 준비대, 성폭력 문제로 기지촌 문제 접근해보자 하면서 세미나들을 열고, 기합 가능 활동가 모집하고, 여성 농민 부녀자반 활동이 아니라 여성 농민반 활동이라고 이름 바꾸기 제한해서 이름 바꾸고, 여성 농민 관련 사업을 따로 전여농언니들이랑 만나서 의논하고, 학생회 애들한테 교양하고, 창장년 반에 술 먹는 거 문제 제기 해봐라 라는 식으로 활동했죠. 가을에 문화제를 했었어요. 주로 비스코리아 반대투쟁 이어서 하고, 심사기준 공개하고, 당신은 아름다움이라는 전시물과 성감대 찾기 이런 거 학교에 도배하고 그랬죠.

하나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그런 건 없으세요?

총여가 여성 활동가들 쉽터, 성폭력 사건 고발하러 오고 이런 역할 했던 거 같아요. 기분이 좋기도 하고 정파와 관계없이 여성으로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치마입고 멋 부리고 다니는 집행부 많았어요. 그런 거 가지고도 말이 많았어요. 일반학우랑 너무 괴리되고 운동권 같지 않다고 말하고, 활동하기에 불편한 차림 이라고 말하길래 너무 화가 나서, 우리 같은 날 대성로를 청치마 입고 올라가자 라고 해서 물려다니면서, 담배피고 뽀글라스 쓰고 청치마 입고 그러면서, 애들이 재네 뭐야 라고 했죠. 왜 사람들이 페미니스트를 못

생기고 안 꾸민다는데 그런 편견 깨고 싶기도 해서, 웃기게 보거나 신기해 한 사람들도 있고 멋있게 본 사람도 있고, 그런 게 되게 재미있었어요.

하나 그럼 학내 활동하시면서 느꼈던 어려운 점, 좋았던 점은요?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 선거가 늘 되게 어려웠어요. 50% 넘어야 되고, 사실 대중조직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나는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거 극복하려고 출퇴근 표 만들어서 총여방 안 비우려고 하고, 그리고 단대별로 좀 다른 식의 접근을 하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 야대 같은 경우는 직장인이 많았기 때문에 직장인 성 지침서를 따로 만들어서 뿌린다면, 여성 교육 운동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었는데, 전문성에 한계가 있는 거죠. 또 제가 삼년동안 총여에 있었기 때문에 늘 삼년이상 똑같은 달력 사업하는 게 좀 학우들 만나는데 한계가 있지 않나 싶었고요, 다른 사업 하고 싶다는 고민도 좀 됐어요.

그렇지만 대중조직으로 가지고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게 좋았던 거 같아요. 제가 행복하게 운동했던 시기이기도 했는데, 운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여성 문제를 설득하려고 그렇게 뽀뽀스럽게 동방과 과방을 다니면서 팔플렛을 건네주고 여성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들어보고 변화시킬 수 있고 같이 하면 뭔가 바뀔 수 있다는 확신에 차서 활동했던 게 그때 밖에 없는 거 같아요. 누구를 설득해야 할지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가 정해져 있으니깐 그런 활동을 하는 건 참 좋은 경험인 거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운동에 대한 생각, 삶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어요. 그니까 대의명분과 내가 괴리된다면 오래가지 못 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좀 다른 삶을 살아도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겠구나, 그게 정말 나다운 삶이겠구나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선임을 가질 수 있게 한 거 같아요.

하나 마지막으로, 인터뷰 마무리하시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세요.

성대가 여성학 언제 과정도 생기고, 학생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여성주의 답문을 받아들이고 걸보기에는 진보적인 변화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실제로 움직이는 여학생들이 많지 않다고 들었어요. 사실은 구석구석 보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여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존경과 지지와 연대를 보냅니다.

하나 고맙습니다.

정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신 13대 총여학생회장 호병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90년대 반성폭력 운동의 다양한 전개

90년대 대학 내 성폭력 운동은 여성운동단체인 80년대 학생운동 세력이 참여했던 성폭력 운동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성폭력' 개념에 대한 급진적 논의로써 '여성의 성적 자율권 침해'를 '여성권의 침해'로 확장 강조하게 되었다. 또한 운동의 대상이 일상적인 문제, 즉 개인 삶 구석구석에 여성을 억압하는 권력에 대한 문제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도 개별적이고 비조직적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90년대 사회주의권 붕괴와 80년대 치열하게 민족민주운동을 하던 남성중심의 학생운동권도 좌표를 잃게 되고 이에 학생들은 빠르게 개별화 개인주의화 되어가며, 거대담론이 무너지면서 그 자리에 사회적 이슈가 대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말부터 부각되기 시작한 성 담론과 성폭력 등의 이슈가 대학생들에게 중요하게 다가왔다.

1990년대 학생 운동권은 철저히 남성 중심적이어서 여성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았다. 그

러한 배경 속에 1990년대 중반 게이 지식인에 의해 제기된 성정치 영향과 대학 내에서 발생한 각종 성폭력 사건이 사회문제로 된 것이 대학 내 독자적 여성 운동 세력을 등장하게 하였다.

특히 98년 고려대와 성균관대 총학생회장이 성폭력 사건으로 회장직을 사퇴하는 등 남자 운동권 학생에 의한 성폭력 사건과 이에 대한 운동권의 태도는 정보와 보수 세력 간 별 차이가 없었고 진보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남남 관계와 성의식에 있어서 얼마나 가부장 적인지를 확인함으로써 여학생들을 학내 성폭력 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운동에서 더 급진적이게 된 계기가 되었다.

1985년 이화여대 대동제 폐막식에서 고대생들의 쟁란을 가장한 집단 성폭력 사건은 성폭력 개념이 단순히 물리적 구체적 폭력 행위만이 성폭력이 아니라 피해자가 느낀 성적 모욕과 수치심, 분노 또한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개념으로 확장되게 되었다. 특히 고대생 집단 성폭력 사건은 폭력이 '무리'라는 배경으로 익명성으로 포장되고 위폐 될 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더 큰 폭력을 행사하거나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반성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었다. 더불어 고대인들의 난동은 상징적 의미에서 물리적 공간에 대한 침해라기보다 '이화인'이라는 정체성과 여성들의 공간에 대한 침해로써 상징적 의미의 성폭력 개념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었다. 또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을 보는 새로운 관점이 생겨나게 되었다. 1996년 연세대 한총련 사태 전압과정에 시위참가자 여학생이 전경들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 대해 여론은 민

주화 세력을 탄압하는 공권력의 횡포라기보다는 전쟁 중에 일어나는 성폭력과 같은 성격으로 규정하였다. 가부장제에서 비롯된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여기고 시위에 가담할 여성들을 보호하지 않아도 될 장조로 여겨 행한 처사로 한총련, 적들의 여자로 규정된 이 사건은 전쟁 중에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폭력과 같은 논리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책위를 구성하였고 이 대책위가 모태가 되어 학내 성폭력의 심각성과 각 학교별 대응의 어려움을 들어 학생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 연대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대학 내 성폭력 사건이 적극적으로 문제화되기 시작하면서, 대학 내 여러 가지 반성이 일어났다. 교수성폭력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대에서는 교수 집단의 자정용직임이 있었고, 성균관대생의 ROTC 사건을 계기로 교수 10명이 재발방지를 위해 성폭력 대책 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성폭력 문제와 예방에 대한 교양강좌를 개설하였다. 전북대에서는 성상담소를 설치하였고 동아대는 성폭력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최초로 성폭력 규정을 학칙에 도입했다. 학생들은 성폭력이 학교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에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칙을 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대학을 중심으로 성폭력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여성 운동가들은 성폭력이 우리의 삶 곳곳에 퍼져 있는 일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들은 일상에서 여성을 배제시키는 모든 것들을 문제 삼고 '시비 걸기' 시작했다. (여성인대회의 1997:19-49) 이들은 스스로를 '여성'으로 또는

90년대 중반 대학가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반성폭력운동은

일상'이나 '문화' 전반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페미니스트'로 강하게 동일시하면서 소모임 형태로 비조직적이고 개별적 운동방식, 개별라식 운동방법으로 일상의 성폭력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개별라 성폭력 운동가들은 성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철거지역이나 지하철에 나타나 성폭력 추방을 위한 퍼포먼스를 하였다. 99년 들꽃모임의 지하철 퍼포먼스를 계기로 지하철 내에 성폭력 주의 환기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것은 이러한 운동의 가시적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중반에 대학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반성폭력운동은 사건이나 제도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 '일상'이나 '문화' 전반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일련의 물리적이거나 구체적인 사건으로 드러나는 성폭력 개념에서 확대되어 일상생활에서 성적 수치심을 받고 모욕적인 언사에 불쾌감을 느끼는 모든 행위나 말을 문제시하고 이로 부터의 변화를 요구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90년대 운동의 경향은 지금에도 이어져, 성폭력의 개념과 의미구성의 확장과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그 때의 시도들이 지금의 대학 내 성폭력 문제 해결의 제도화(반성폭력 학칙, 성폭력상담소)를 낳은 것이다.

성폭력 담론의 형성과 반성폭력 학칙 제정의 과정

1996년 12대 총여학생회

- 각 대학들을 중심으로 성정치 담론이 형성되는 시기였다.
- 기존에는 성폭력 문제가 발생해도 침묵하거나 크게 문제시하지 않았던 데에 비해 이 시기부터는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사건을 총여학생회에 신고하기 시작했으며, 대자보 등을 통해 사건을 공론화했다.
- 도서관 강간미수 사건을 비롯한 여러 사건이 공론화되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지금의 성폭력 담론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1997년 13대 총여학생회

- ROTC사건은 당시 성폭력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

이었으며 더 이상 총여학생회만이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기보다는 안정적이며 또한 권위와 강제력을 가진 제도적 기반이 존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던져주었던 사건이었다. 따라서 총여학생회는 성폭력에 대한 개념의 확보와 현실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된다.

- 위의 사건들을 시작으로 반성폭력 학칙을 고민, 성폭력이라는 것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이며 학내에서 이를 대응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성폭력 근절주간, 성폭력에 대한 토론회 등의 사업으로 고민을 표면화 하였다.
- 학교 측에서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다. 그러나 징계위원회의 경우 성폭력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교수, 교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건을 판단할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도 가지지 못했고, 상시적인 기구가 아니라 사건 때만 소집되는 특별기구였으며, 가해자 처벌에 대한 기준도 불명확한 상태였다.
- 다른 대학과 함께 '여성권 확보와 성폭력 학칙 제정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를 결성하였다.

1998년 14대 총여학생회

-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공동체 성문화에 대한 문제제기,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운동'이 진행되었다. 학생회를 중심으로 하는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위원회'를 결

성하여 성폭력의 심각성과 학칙의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벌였다.

- 학칙제정위원회에서 학칙 기안을 작성, 검토 후 학교 측에 학칙 기안을 제시하고 학교당국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가졌다.
- 학우들의 동의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에 대한 모의투표'나 '성폭력 관련 학칙 공청회' 등의 노력을 했으나 학교당국과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학칙제정의 결과를 남기지 못했다.
- 97년에 결성된 연대회의는 98년도에 본격적으로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운동을 시작하였다. 연대회의의 활발한 활동은 대사회적으로도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 총학생회장 성폭력 사건은 당시 고대 총학생회 성폭력 사건과 함께 학생운동 사회 안의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 타학교 학생회 성폭력대 학생 간의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여 해당 학교와 연대하여 사건 해결을 도모하기도 했다.
- 학교 측과의 협의를 통한 학칙제정이 갖는 한계점을 여실히 느끼며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OT 반성폭력대규를 제정하는 등 학생 스스로가 주체로 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2000년 16대 총여학생회

- 2000년 학교 홍보물에 반성폭력 학칙이 만들어졌다는 엉뚱한 발표로 학교당국과 단판짓기에

돌입하였다. 16대 총여학생회는 학칙제정을 위해 고민한 글과 학칙 기안 등의 자료를 학교에 제출하였고, 학교 측과 지속적인 논의 테이블을 갖기로 하였다.

-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학교안과 학생회 안을 조정하는 과정을 가졌으며, 이 과정에서 총여학생회는 변호사, 교수, 사회단체의 법률 자문을 받아 하나의 안으로 조정을 완료하였다.
- 수개월동안 이어져 왔던 총여학생회와 학교당국의 논의들은 내용적 발전을 기대하기 힘든 것들이었고, 논의가 끝나고 나면 문제는 항상 제자리를 맴돌고 있었다.

2001년 17대 총여학생회

- 제5회 올림페스티벌에서 '대학은 성폭력 박물관'이라는 모토로 학내 성폭력 문제에 관한 행사를 진행하였다.
- 스토킹 사건과 사이버 성폭력 등의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이 발생하여 성폭력 개념규정 구체화의 필요성을 고민하게 된다.
- 2001년 1월, 위와 같은 상태에서 규정위원회에 올라간 학칙 안의 내용은 애초에 학교당국에서 제시한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았고, 총여학생회는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조항들에 대한 입장을 별첨자료로 올리는 무기력한 상황이었다.
- 규정위원회가 열리고 몇 달이 지나도록 학칙은 제정되지 않았고, 그 이유에 대해 총여학생회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늘

어놓았다.

2002년 18대 총여학생회

- 2002년 8월, 총여학생회가 오랫동안 학칙제정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여학생회와의 상의 없이 학교 당국의 일방적인 안으로 학칙이 날치기 통과되었다. 학교 당국에 학칙의 문제점과 시행세칙의 제정을 요구하였으나 무시함.
- 여러 사건이 접수되고 공문화되었으며, 특히 정력이 사건은 환경형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취시켰다.

2003년 19대 총여학생회

-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학칙에 의한 해결을 위해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 때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당시 총여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과 몇몇 교수, 교직원들로 구성되었는데 대다수가 성폭력 문제에 대한 전문가이지는커녕 최소한의 성폭력 예방 교육조차 받지 않은 위원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았다. 사건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성폭력 개념 규정만 몇 마디 오고가는 어이없는 상황만 계속되었다.
- 2학기에 열린 제 7회 웬페스티벌에서는 당시 문제가 되었던 교수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당시 학생들에게 교수성폭력에 관한 의견과 사례를 받기도 했으며, 교내 교수진

전원에게 편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2004년 20대 총여학생회

- 제11회 여성현실제에서 '성폭력으로부터 안녕하기'라는 모토를 내걸고 학내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과 현행 반성폭력 학칙의 문제점과 개정 필요성을 알리나갔다. 이 과정에서 모범 사례인 부산대학교 학칙과 비교 분석하는 작업과 학칙 개정에 관한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 9월에는 한국어성민우회의 주제로 열린 <대학내 반성폭력문화 확산을 위한 워크숍>에 참가하여 타학교의 학칙과 사례들을 참고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자리를 가졌다.
- 11월 학내 여자화장실 성폭력의 문제를 알리고, 화장실 비상벨 설치 등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2005년 새터에서는 몇 년 동안 그대로 내려오기만 했던 새터 반성폭력 내규를 좀 더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연석중앙운영위원회 이를로 발의하였다.
- 2005년 3월 학내 여자화장실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여 학교에 성폭력 사건 대책위 소집을 요청하였으나 '어차피 가해자에게 처벌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굳이 대책위를 열 필요가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들었다. 반성폭력 학칙과 대책위원회가 형식만 갖춘,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현행 성균관대 반성폭력 학칙이 갖는 문제점

1) 피해자 보호조항 전무

한 날 한시에 일어났던 같은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다른 말을 한다면, 특별한 '증거'가 없는 한 가해자의 말을 믿는 것이 우리 사회의 성문화이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성폭력 사건의 상황과 피해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알기위해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그 기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사건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초래한 사람으로서가 아닌, 최소한 피해자 자신으로서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는 시작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피해자 중심주의'는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이 되어야 한다.

또한 대리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대리인의 진술을 피해자의 진술과 동급으로 취급할 수 있어야 한다. 피해 사실을 신고했을 경우 겪을 수 있는 또 다른 피해 때문에 신고하기를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그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 한다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대리인의 보호에 대한 조항도 함께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현재 성균관대 반성폭력 학칙에는 피해자 보호 규정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

2) 성폭력에 대한 개념규정의 모호성

성폭력에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반성폭력 학칙은, 어떤 것을 '성폭력'을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현 학칙에는 "성폭력이라 함은 범죄행위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런 규정은 성폭력 개념이 너무 포괄적인 개념으로만 정리되어 있어, 너무 추상적이고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마치 '범죄는 처벌받아야 해'라고

만 말할 뿐, 과연 어떤 것이 범죄인지 명시하지 않는 것과 같다. 성폭력 개념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를 통해, 어떤 것이 성폭력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과 내용이 필요하다.

3) 학칙 적용 대상의 모호성

학칙에 따르면 "구성원이라 함은 본교에 소속된 교수, 강사, 직원, 조교, 학생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자를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3조(적용범위)에 따르면, 이 내규의 적용은 '본교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 따르면, 적용규정은 피해자와 가해자 중 1인만이 우리학교이거나 졸업이나 기타 휴학 등의 상태인 사람에게 적용가능한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학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고용 형태 안에서 만들어지는 사건에 경우에는 학내에 서는 해소할 곳이 없어진다.

따라서 구성원의 지위변동이 학칙의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현 학칙은 성폭력 사건의 당사자에게 지위변동이 있을 때, 학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밝혀놓지 않고 있다. 만약 시간강사인 가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사직하거나, 재학생이 졸업해 버리는 경우, 현 학칙대로 사건을 해결하려 한다면 더 이상의 진전을 보기 힘든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

4) 사건공개 원칙

반성폭력 학칙이 대학 사회에서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학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해서 더 이상 침묵하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일 수도 있으며, 구체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예방과 해결의 의무가 학교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학칙에서도 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 예방대책과 보호 절차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학칙이 갖고 있는 많은 의미들 중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은 강조에 강조를 거듭하여도 지나친 것이 아니다. 어떠한 행위가 성폭력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사람은 바로 피해자이며, 피해자가 존재하기에 '성폭력'은 '있는' 것이다. 반성폭력 학칙 역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건 공개는 사건을 피해자의 시각에서

재구성하고 이를 알림으로서, 피해자를 피해자의 지리에 서 있게 함은 물론이거니와, 성폭력 사건이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문제이며, 공동체의 관심과 의지 속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대학 안에서의 성폭력 근절을 위한 반성폭력 학칙이라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학칙의 경우에는 성폭력 사건의 결정 및 처리의 방법에 사건 공개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비밀유지 라는 부분만 적고 있어 자칫하면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고 마는 식의 사건 처리를 조장할 수 있다. 사건의 진행 과정과 기타 사항 등이 대책위원회 이외에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은 원칙일 수 있으나, 사건의 내용과 처리에 대해서는 학내 공개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인식을 환기 시키는 한편, 현재 학내 상황을 알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부산대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5) 가해자 관련 조항

가해자 징계 조항은 가해자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그 절차적 과정과 정당성,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학교 학칙에는 "제11조(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 ①위

성대 반성폭력 학칙에는 과연

피해자중심주의 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성폭력의 개념부터 모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학칙 적용이나 관련조항이 모호한 실정이다.

원회는 제3항에서 조사·보고 된 사건을 심의·의결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i) 피해자에게 민·형사법적 구제수단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ii)가해자의 행위가 학칙 등 관련 규정의 징계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 의뢰/ iii)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다 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이다.

학칙은 학내 구성원들이 따라야만 하는 일정 정도의 강제력을 갖고 있지만, 그 강제력은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시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유지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본인의 선호도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공제를 따지 않으면 졸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졸업을 위해서라도 상공을 따라 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반성폭력 학칙을 통한 사건에 해결이 있어도, 가해자(로 신고 된 자)가 사건 진행에 관심을 보이고 참석해야 하는 것은 매우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강제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현재 학칙은

이에 따르는 보완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건 처리의 어려움이 예상 될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학교 학칙은 가해자에 대해 "가해자의 행위가 학칙 등 관련 규정의 징계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의 회"까지만 결정할 수 있다. 즉, 징계의 내용은 다른 징계위원회가 꾸려져야 한다는 뜻이 된다. 이렇게 이중적인 구조를 거쳐야만 징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 처리 까지 걸리는 시간은 두 배 이상이 되기 마련이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지치기 마련이다. 또한, 시일이 길어질수록 2차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기도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해자에 대한 강제 조항 추가와 일원화된 징계 구조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①가해자 강제 소환 규정이 필요하다.

가해자 불출석시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 및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능케 할 강제적인 출석 요구 조항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요청에 대한 조사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위원회가 사건을 방치하는 경우까지도 자주 발생한다. 가해자들이 강제 소환 규정이 없는 허점을 악용하여 출석하지 않고 징계를 쉽게 피해가는 경우도 있다. 가해자의 불출석을 제재하고 절차를 진행시킬 방법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불협조로 조사는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현재 학칙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② 2차 가해에 대한 가중 징계 조항을 마련하고, 엄정히 시행해야 한다.

가해자에 대한 가중 징계 조항이 있기는 하나, 실제 징계 시 이 조항이 크게 고려되고 있지 않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2차 가해에 대한 가중 징계 조항이 없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2, 3차 지속되는 반복적 가해 속에 노출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사건 해결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이다. '피해자에게 유형, 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가해자의 2차 가해 전 범위를 포괄할 수 없다. '보복'의 차원은 아니지만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하여금 계속되는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단호한 가중 징계를 보장하는 학칙을 통해서 피해자 보호의 여지를 넓혀야 한다. 덧붙여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내리거나 이행시킴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③ 동조자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해자의 가해 행위를 방조하거나, 가해자에게 유리하도록 위증하는 동조자를 징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방조자 및 제 3자 등에 대하여 확장 조사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어 사건 해결이 좀 더 원활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학교 후문에서 수선관으로 내려오는 길

"후~ 저 일을 또 어떻게 내려가지?"

우리 학교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수선관에서 구두를 신고 내려올 때면 늘 발가락이 조여움을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걸음으로 내려가 집에 도착해서 구두를 벗으면 어느새 뽕뽕 부어있는 내 발.

정말이지 높은 언덕의 수선관 수업이 있는 날이면 오늘 과연 구두를 신어야 할지 고민을 할 정도로 수선관은 부담스런 길이다.

결국 이 길은 운동화를 신는 것만이 고통을 피하는 유일한 수단일까? 여학생들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이 현실이 그저 괴로울 따름이다. "우리도 수선관에서 당당하게 뛰어 내려가고 싶다구!"

교수 성폭력, 무엇이 문제인가

교수 성폭력은 문제제기 자체의
어려움과 '교수'라는 지위의 특수성으로
그 해결이 모호하여 접근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교수 성폭력은
우리사회의 권위에 대한
복종의 한 단면이다.

교수 성폭력 혹은 강의실 성폭력은 강의 중 교수에 의해서 학생에게 행해지는 모든 형태의 성폭력이다. 강의실 성폭력이라는 용어가 가해자인 교수를 충분히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여기서는 교수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교수 성폭력은 일반적으로 언어 성폭력의 형태가 그 주를 이룬다. 전북대 모 교수의 "넌 얼굴이 예뻐서 난자 값이 비싸겠다."라는 발언은 언어 성폭력의 극단을 보여준다. 하지만 언어 성폭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분위기나 시선과 같은 기타 상황들 역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교수 성폭력의 형태를 언어 성폭력만으로 규정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부각되고 있는 교수 성폭력의 경우 근절을 하기에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첫 번째는 그것이 이미 사회적으로 성폭력이라고 충분히 인지될 수 있는 정도에 한해서만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 쟁탈에 있어 아직 식민지화 되지 않은 땅을 '처녀지'라고 부르고, 식민지화가 이루어지면 이것을 '강간당했다'라고 표현한다. 아무리 이것이 학술적인 용어이며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하는 은유적 표현일지라도, 이는 분명 성차별적인 발언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이 사실을 대부분의 학생들은 성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수업 중 지식의 전달이

라는 특수한 상황이 그러한 인식을 방해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문제제기 자체의 어려움이다. 교수의 행위의 문제성에 대해 인식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문제제기로 연결되는 경우는 드물다. 우선 교수와 학생이라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위와 이에 따른 위계질서가 문제를 제기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또한 학생들 간에 문제를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하려는 분위기는 소통 자체의 여지를 삭제한다. 특히 이 권위와 관련된 문제의 경우 이후의 불이익을 우려하게 하여, 가령 학생들 사이에서 공론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문제제기의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세 번째는 문제제기 이후에도 해결 방법이 없거나 모호하다는 것이다. 현재 교수 성폭력 사건의 경우 그 처리 절차와 처벌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물론, 논의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성폭력 가해자는 자신의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처벌의 수위를 낮추려고 하며, 대부분 이러한 사안들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같은 교직원이기 때문에 확실한 징계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사안에 대한 전문가가 부재한 것도 이후의 해결방법을 모색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교수 성폭력은 학생들에게 '상아탑으로써의 대학'이 아닌 '불안과 불신의 장으로의 대학'의 모습을 심어주고 있다. 자유로이 학습할 수 있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내 반성폭력 학칙과 이러한 사안들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논의 테이블이 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전부터 자행되어왔던 교수 성폭력에 대한 논의가 이제야 부각될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는 우리 사회가 권위에 복종하는 데에 너무 익숙했기 때문일 것이다. 남용된 권력은 권위에의 복종을 전제할 수 있다.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하고, 그것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으며,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분위기가 시급히 요구된다.



“실제상황, X맨!” 경영학부 전공수업 〈기업윤리〉를 고발한다!!

강의 중...

- ▶ 발표하라 나쁜 여학생을 가리키며 전체 학생들에게 “저 학생 예쁜가, 안 예쁜가?”라는 질문을 계속 던졌다.
- ▶ 양주를 그려 놓고, 양주가 빈이냐 술이냐 라는 부정적인 시각은 어쨌든 것이고, 빈이냐 남았냐 라는 긍정적인 시각은 남성적 사고라는 발언을 했다.
- ▶ 앞에 나온 여학생을 세워두고, 예쁘고 늘씬하고 헤어스타일도 예쁘다고 하면서 스킨십을 하였다.

식목일 산행 중...

- ▶ 식목일 산행 때 여학생과 남학생을 교대로 세우고, 입으로 먹 물고기 게임 을 시켰다. 입물을 한 초는 리본을 했는데, 리본을 했던 남학생에게 행운이라고 말했다.
- ▶ 식목일 산행 때 남학생에게 열차와 여학생 손을 한 번 잡으라고 시켰다.
- ▶ 식목일 산행 뒤돌아 숲자리에서 여학생 두 명이 같이 앉았으면 남학생 옆에 끼어 앉으라고 시켰다.

시도 때도 없이...

- ▶ 여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머리가 길어서 좋다” 고 말했다.
- ▶ 여학생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것은 당연시되는 일이다.

당신은 혹시 위의 사례가 그저 놀랍고 황당할 뿐인가. 그렇다면 가능성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그야말로 성인직적 관점이 뛰어난 성평등한 수업만을 용케도 수강해왔거나(사실 이러한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 수천년에 걸친 역사에다 스무해가 한참 넘도록 당신을 찌들게 한 남성중심적인 사고방식에 당신도 모르게 벌써 상당부분이 잠식당해 있거나... 혹은 두 가지 가능성에 모두 해당이 되지 않아도 '대체 어떻게 저런 일들이 가능하단 말인가!' 라고 묻고 싶은 사람들도 많을 줄 안다 -물론 그 이유는 제각각이리라- 것이다. 이유는 그다지 어렵지도, 복잡하지도 않다. '대체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너무도 가능하기만 한 온갖 상황과 여건이 성균관에는 판타스틱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철저하게 차별활동으로 구성되는 이 수업은 교수-조장-조원이라는 아주 위계적인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 조원의 구성에서도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수업계획서 상에 조원의 구성은 '경영학부생, 타 학부생, 여학생'을 고르게 배치하겠다고 적혀있었던 바로 그것이다. 성균관에는 혹시 '여학'이라는 전공이 있던가? '여학'은 어쨌든 경영학부 혹은 타 학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독립적인 영역을 (이 말도 안 되는 분류 안에서) 이루게 된 것인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실상 이 수업에서 여학생들은 교수의 '눈요기' 내지는 구색 맞추기에 활용된 도구일 뿐이다. 사

례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많은 수강생들로부터 다양한 사례들을 들을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제보자들은 개인의 신상이 노출되는 점을 극히 꺼렸다. 따라서 개인에 대해 행해진 사례는 전부 기재 하지 않기로 했다.

다수의 학생이 공통된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문제제기조차 쉽사리 하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은 비단 이번의 경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앞서 글에서 살펴본듯이 교수와 학생은 절대적인 수직적 권력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이든지 학생으로부터 교수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기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나 한국사회처럼 '성폭력'이라는 용어 자체에 거부반응이 만연해있고, '성폭력'으로 명명되는 순간 가해자 두둔 내지는 옹호를 우선 하게 되는 분위기속에서 '교수에 의한 강의실 성폭력'은 이제껏 앞에 담기도 송구스러울(?) 현실일 수밖에 없었다.

더더욱 어려운 것은 문제 상황에 직면한 학생들 사이에서도 의견 대립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 이 수업과 관련하여 수집된 사례 중에는 교수의 언행을 반기며, 오히려 더욱 나서서 여성에게 적대적 환경을 조성하는 발언이나 게임유도 등을 했던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그들에 대한 문제제기는 잠시 덮어두고라도 이는 교수의 성폭력적 언행이 재생산되는 구조를 너무도 명확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여성 차별적인 발언,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는 언행, 원칙 없는 스킨십 시도, 성적으로 불쾌한 분위기 조장 등 교수의 언행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형태로 상상을 초월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사전정보를 입수한 여학생들은 나름의 수강계획을 수정하면서까지 이 수업을 피하기도 하고, 혹은 학점 이수 상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수강하기도 한다. 전혀 사전 정보를 입수하지 못한 학생들은 뒤늦게 알게 된 어이없는 수업분위기에 불쾌하지만 별다른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그 어느 것도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가부장적 문화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것은 지식과 명예로 다져진 교수의 권위에 있어서도 웬만큼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교수'라는 직위가 꽤 오랫동안 남성에게만 허용된 위치였고, 전공 분야에 대한 권위가 그 외적인 측면의 권위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그 심각성은 결코 덜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이 존경하는 것은 다만 교수가 쌓은 학문의 업적이며, 그것을 담보로 성관계의 무지몽매함이나 어떤 형태의 잘못된 용인할 생각은 없다. 학교는 하루빨리 권위에 묻혀가는 강의실 성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장치와 실질적인 처벌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성폭력 예방교육의 강화 실시, 강의 평가 내에 성폭력 여부 항목 추가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학교의 여성주의 활동 이야기

고대여위 인권의 인터뷰

특별기구의 위상을 갖고 있는 고대여위는 학내에서 여성주의 운동의 중심에 있다. 활동을 알아보면 크게 여성학 도서관, 여성해방제와 같은 대중사업, 어문언 세미나와 같은 학술부일 또 타 여성운동단위와 연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4월에 방들이를 통해 언어인 사람들을 만나고 대외에서 같이 연대 운동하는 사람들과 얼굴을 뜨며 매일 천리행이라는 여성학도서관 광장행사를 하면서 다음 달 어위행사를 홍보하고 책을 통해 대중과 만나기도 한다. 5월에 문화제를 해서 그동안 고인했던 부분을 녹여 자료집을 내고 광장사업을 몇몇 실천단과 같이 하는데 이번에는 '성적 폭력과 성적 불쾌감'이라는 주제로 활동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7월 방학에는 세움터 활동을 가고 여성문재연구회 세미나가 6번 b반으로 나뉘어서 여성학교양세미나와 심화세미나를 한다. 세미나 같은 경우 주로 30~40명이 참가하여 세미나는 7차정도 이루어진다. 2학기에는 문화제와 비슷한 역량의 편이 좀 더 큰 여성해방제라는 축제를 한다.

그렇다면 여위가 마주하는 학내 여성주의에 대한 분위기는 어떠한가? 여위에는 홈페이지가 없다. 사이버테러가 존재하기 때문인데 여위가 하는 일이 여성권 신장을 위한 활동이고 매우 극단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이다. 그렇지만 여위는 여성주의기구로서 지적해야 할 부분을 용감하게 말하고 그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예를 들어 학행이란 말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정치적 소수자이기 때문에 동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계속해서 학교에 항의하여 기본 총계 수업을 들을 권리,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신체적 언어적 성적 괴롭힘을 막기 위한 노력과 고민들이 그것이다. 여위는 왜 여성과 남성이 같이 존중받아야 하는지, 왜 인권이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는지 고민해보고 그리고 나서 깨닫고 삶의 철학으로 삼을 수 있는 여성주의 세상을 꿈꾼다.

그 밖에 고대 내 여성주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모임으로는 장경대와 문과대의 여성주의학회 그리고 여학생 휴게실 자치모임 등이 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여성주의 일 년 나기'라고 각 과반 학생회와 여위 그리고 학회 사람들이 모여서 연대활동을 하고 있다. '일 년 나기'는 지금 언어성폭력근절운동을 하고 있다. 모니터링을 모집해서 각자가 듣는 수업을 모니터링해서 언어성폭력발언을 신고하고 공유한다. 클럽 상으로 또는 대자보로 공론화하는데 클럽관리와 모니터링모집 신고 후 대응, 그리고 요원들을 위해서 강연회 등을 조직하고 있다.

관악 여성 모임 연대는 지금 서울 대학교 안에서 각 단대마다 있는 여성 연대체라고 할 수 있다. 여성 모임, 여성 연대체라고 할 수 있는데 제도적인 조직이나 예산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시시때때로 예산과 활동과 활동하는 사람들이 바뀌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연대체로서 단대별로 있는 모임들이랑 연대가 이루어진다. 인문대 여성 모임 연대와 연대하고, 공대에 여성주의 모임인 여로, 그리고 사범대에 여성 모임, 사대여모랑 서울대학교 여성주의 자치인론 주이벤스 등이 있으며 연대체는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바뀌고 있다. 관악 여모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과 행사를 알아보면 '오라차차 강의실 튀집기'라는 모임을 만들어 강의실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모니터링 하고 학생들이 강의 중에 불편한 점 등의 사례를 모으고 신고를 하고 있다. 가을에는 페미니즘 문화제를 여는데 올해 8회를 맞이한다.

관악여모가 마주하는 학내 분위기를 살펴보자. 전반적인 학교의 분위기는 사실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단대마다 아직은 여성운동이 좀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름대로 세미나도 하고 아직까지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여성주의에 발을 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관심은 없지만 관악 여모를 아는 이들은 여성주의에 대해 긍정적이다.

관악여모는 여성주의를 고민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처음 여성주의에 관심을 갖고 시작하고 있다. 여성들이 생각하는 고민들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중요시 하며 학내 여성운동의 방향을 고민 한다. 그 밖의 모임으로는 난리부르소라는 서울대학교 여성주의자 집단 등이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의 경우에는 성희롱성폭력상담소가 설치되어 학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을 접수하고 해결해가고 있다.

관악여모 맥랑과 치치와의 인터뷰

이야기 여위듯이 화운 다들 화프이



불편하다

총여학생회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 과격하다거나, 성폭력 운운하는 것이 싫거나, 여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싫어하거나, 쟁기는 일이 있었거나. (정말 그러한가에 관한 논의는 뒤로하자.) 아무튼 각각의 이유로 총여회를 불편해 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글은 그들의 불편함을 담아주고자 하는 글은 아니다.

선거 때가 되면, 모든 학생회는 바쁘다. 자신들의 존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일반 학우'들에게 목이 터지도록 알려내야 하고, 심지어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투표를 하게 만들어야 한다. 총여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가 누구인지, 왜 필요한지를 설득(?)하고, 무엇을 해왔고 또 무엇을 하리라는 약속을 해야 한다. '일반 학우'를 기반으로 하여, 이 글은, 여기서 비롯되는 불편함에 대해 생각해보려 한다. '학생회'라는 옷을 입고 '여성주의'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옷에 대해 갖는 고민들을 나누는 것은 지금 우리의 상황을 알게 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총여학생회가 불편하다?

거북(19대 총여학생회장)

학생회로 살아가기

학생회란 그림다. 매해 연 말 혹은 초에 선거를 통해 구성되고, 학생회비로 사업을 하며, 공간 문제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선거'라는 형식을 통해 구성되기 때문에 성폭력 사건 개입 등의 활동에 이견 없이 정당성이 부여되기도 한다. 한마디로, 선거 방식으로 갖게 된 대표성은 많은 것들을 정당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총여가 갖는 어려움도 '학생회'라는 틀에서 기인한다. 부담스러운 '선거'라는 절차를 지쳐야 한다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활동을 '일반 학우'를 위해 기회해야 한다는 압박(?)이 생긴다. 그리고 이것들의 평가 기준으로 일반학우, 모든 학우를 위한 활동이나 라는 것대가 알 뉘 없이 '들어대' 진다. 그래서 '여학우들도 동의 못하는데', '여학생들도 별루라는데'라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비난 앞에서 가끔 멍뚱 거리게 되기도 한다. 여기에 달마다 정해져 있는 학생회 달력에 서달리고, 중앙운영위원회(중운)에 지치다 보면 다시 가만히 멍뚱하게

된다.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건가. 멍뚱거림의 간격에 서서, 생각하게 된다.

'여학우'를 위한 것이면 무엇이든?

총여학생회는 유별하게 있는 학생회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키 작은 사람 학생회나 머리 큰 사람 학생회 같은 것은 없는데, 유독 여학생을 위한 학생회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을 위한 요구와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주변 '총여학생회'라는 이름을 달고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을 둘러보면, 과연 그러한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소위, 구시대의 운동권 학생들이 갖고 있던 심난한 정치성 보다는, 학우들의 목소리와 복지에 힘쓰겠다는 학생회가 여기저기서 보이는 (물론 가까이 성균관대에도!) 지금 상황에, 주변 총여학생회의 상태도 많이 변하고 있다. 예전 모 대학 총여학생회 행사는 '볼륨 업' 이었고, 여학생들을 위한 메이크업 강연회 등을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였다. 그리고 이 학교 뿐 아니라, 여학생 취업 특강, 여학생 휴게실 관리, 생리대 지급 등의 복지 관련 활동 들 만이 총여학생회의 오롯한 임

눈을 씻고 찾아봐도 키 작은 사람 학생회나 머리 큰 사람 학생회 같은 것은 없는데,
유독 여학생을 위한 학생회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을 위한 요구와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뜻일 것이다.

무라 여기며 활동하는 모습들은 여기저기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여성 성공에 대한 것을 귀 기울이지 않지,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바꿔내기 위한 활동은 찾아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모든 여학우가 좋아한다는 이유로 정당화 될 수 있는가. (마찬가지로 실제로 그러한가는 논외로 하자)

여성운동이 '하고 싶다'

총여는 학생회의 성격을 띤 '여성운동'의 공간이며, 그 강조점은 당연히 '여성운동'에 찍혀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총여라는 옷은 안정적인 기반이 되지만, 때론 복지에 치중하라는 등의 또 다른 부담을 갖게 하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학내에 필요한 여성주의 목소리와 고민을 풀어내기에도 사실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유독 총여들이 심한 탓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여성운동을, 조금은 더 재미있게, 자유롭게 풀어내기 위한 고민들은 한동안 계속 이어지리라 생각한다.



학생회관 3층 여자 화장실

두 칸밖에 있는 화장실이지만 늘 한 칸은 비어있다. 거울을 보고 있으면 느껴지는 사람들의 시선. 4층에서 누가 내려다보면 보일 것 같고 학교버스가 내려오다가도 사람들이 볼 거 같고, 화장실을 마음 편히 이용할 권리가 우리에게 사라졌다. 버스가 내려가는 것이 아주 가까이 보이고, 창문에서 보이는 동아리 방이 있으면 여학생들이 어떠한 느낌을 받을지 이것을 만든 사람들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을까?

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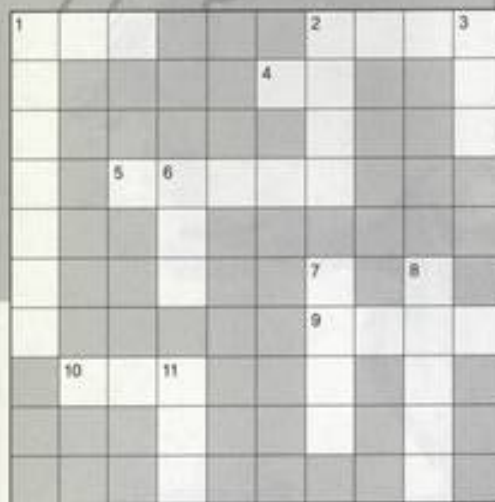
1. 일회용 생리대와 탐폰에 반대하여 여성이 직접 자신이 만든 생리대를 만들자는 운동을 벌이는 단체는 000년대이다.
2. 일반적인 한국 가정에서 '주부의 일'이라고 당연시되며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는 것은?
4. 가족 내에서 남성들의 일방적인 성적육구, 강요, 폭력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존재하고 성적지배결정권 차원에서 00년 강간죄도 성립되어야 한다.
5. 이번 총학생회에서 준비한 학내 여성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내어저 왔고 지금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행사는?
9. 생물학적인 차이로 여성의 여자를 두지 않았던 월경, 임신, 출산도 가치체계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경험일 수 있듯 뒤집힌 사회를 통해 가부장제 사회의 모순을 잘 보여주는 페미니즘 소설/게르드 브란튼베르그의 000의 딸들이다.
10. 성폭력 피해자를 000라 부르는 이유는 그간 피해자란 말이 자닌 '약자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건디기가 힘든 고통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주체적인 존재로서의 의미가 있다.

제 12회 여성현실제 made by herstory

세로

1.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이해하고 개념하고 규정한다는 의미의 말은?
2. 가정이 가족성원에 대하여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가족을 지배 통솔하는 것으로 여성학의 대표적 정치는?
3. 우리나라에서는 홍익천씨의 '커밍아웃'으로 000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다. 이것은 단지 성적지향이나 다른 소수자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차별을 받고 있다.
6. 성별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언어적·심리적 폭력
7. 원래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위해 시행되는 식이요법'을 의미하는 영양학적·의학 용어인데 대중 매체 등을 통해 점차 용어가 사회적으로 보편화되면서 주로 여성들이 사회가 원하는 몸매를 갖기 위해 실천하는 것을 총칭하는 용어는?
8. 여성이 수동적으로 남자의 성기에 의해서만 쾌락을 즐기는 것 뿐 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여성 생식기의 이름은?
11. 남성들 사이에 소위 '형제애'라는 것이 존재하듯이 여성들 또한 여성들의 노력과 생각을 공유하고, 연대의식을 표현하는 말은?

feminism cross-word puzzle



정답을 맞힌 후 학생회관 4층 중앙
학생회실로 가져오시면 소정의 상품
을 드립니다 ^o^

3월부터 시작된 <wm타자기 세미나>는 여성주의에 대한 고민을 무력무력 카우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5차 세미나까지 즐겁게 마쳤답니다. 지금까지는 성차, 몸과 섹슈얼리티, 여성과 문화, 여성주의 시각으로 보는 연예, 여성과 노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마지막 8차 세미나까지 앞으로 여성주의 시각으로 보는 가족, 성폭력, 성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참여를 항상 기다립니다~

3월 말에는 <나의 몸을 기억해라>는 행사를 통해 강연관 1층에서 우리의 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시도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었는데요, 그만큼 반응도 다양했던 행사로 기억되는군요. 특히 여학우들만의 비밀 동굴은 굉장한 호응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죠. 이런 행사 자주 하세요~ 라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고민이 있으신 분들과 함께 행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해요. 학생회관 411호는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

5월부터는 매주 수요일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 두 시간 가량 <대안월경대 만드는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여학생휴게실이 여성들의 소통과 담론을 만들어나가는 공간으로 자리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장소는 학생회관 4층 여학생휴게실 내 세미나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 의 몸과, 친 여성적인 환경과, 여성의 일을 여성이 주체가 되어 관리하기에 대한 고민들이 반짝이며 소통되었으면 해요. ^^

방중에는 2004년 여름마실에 이어 2005년 여름마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상에 지치고 휴식이 필요한 여학우, 여자친구와의 만남이 필요한 여학우를 위한 여유로운 시간을 함께 준비하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강의실 성폭력 모니터링과 학내 여학우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해 온라인에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cyherstory.cyworld.com)에 가입신청을 하시면 여학우는 누구든지 환영입니다. 이곳에서 학내 생활의 불편함, 즐거움 등의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길 희망해요~!

2005년
여학생위원회(준)는
이렇게 살아요 ~o~*

